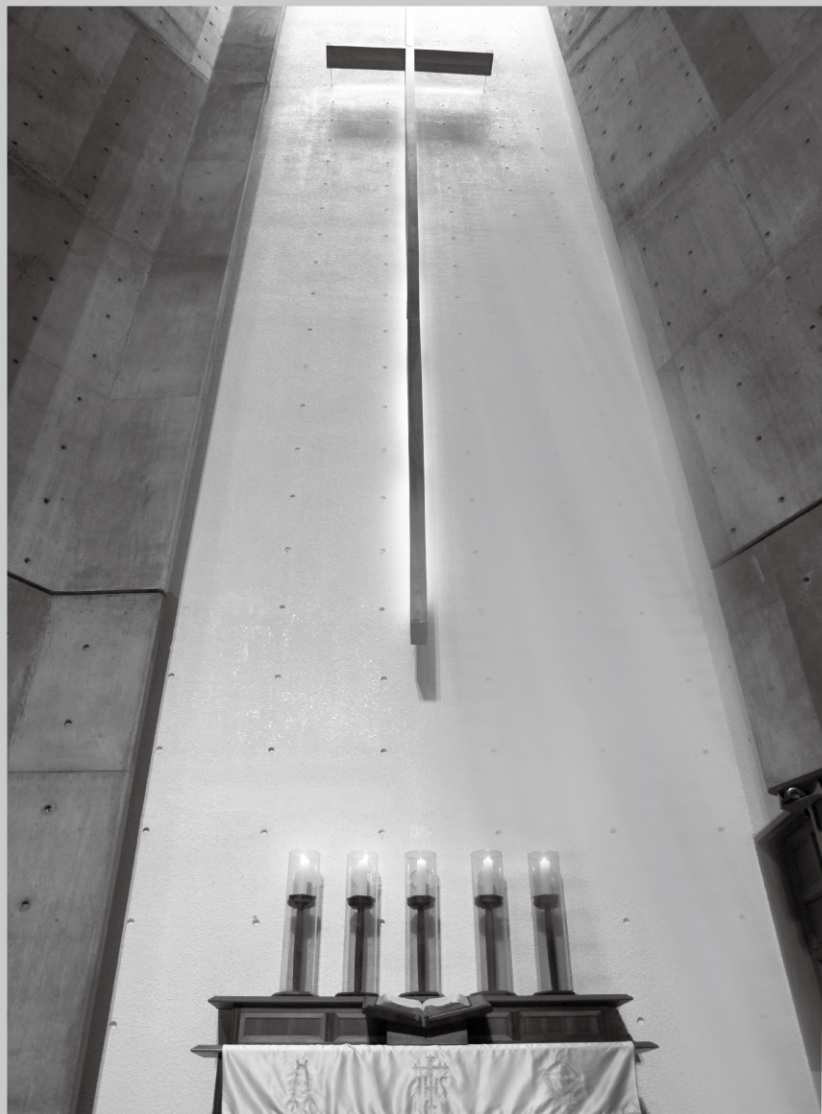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성탄절감사예배

2020년 12월 25일(금)

예배시간 오전 11시

아기 예수 탄생 | 정명오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성탄예배

전주

아기 예수여 찬양받으소서(J. S. Bach) 오르가니스트: 신재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118장(영광 나라 천사들아)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니, 우리가 큰 소리로 감사와 찬송을 드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평화의 소식을 전합시다.

회 중: 아멘.

*송영

.....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떨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회 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목 사: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회 중: 주님,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목 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 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회 중: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시 97편).

경배찬송

121장(우리 구주 나신 날)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며,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약 5:15),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경동찬송 12장) 다함께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침묵의 기도

.....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시 86:5), 여러 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영광(경동찬송 14장) **다함께**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알렐루야 알렐루야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11:1-9 **박연길 목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땀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응답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후렴 **다함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서신의 말씀

히브리서 1:1-3 **김민정 목사**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응답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후렴 **다함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1:6-13 **목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후렴 **다함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기세례 **집례: 채수일 목사**

아 기	성별	아버지	어머니
김노엘	남	김현로	유승주
박서은	남	박선교	이미리

성탄절 평화의 인사 **다함께**
성탄절 공동기도 **다함께**

스스로를 낮추시어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빛이 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갈등과 다툼, 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코로나감염증과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는 이 지구에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위에 강복하시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세상의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태어나신 이 날, 특별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경동의 어린이들과 오늘 세례를 받는 주님의 아기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강복하셔서, 부모는 아기를 믿음으로 키우고, 아기는 부모의 사랑과 소망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주님에게는 기쁨이, 부모에게는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와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arr. J. Stainer) **박수길 장로**
설교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찬송 111장(귀중한 보배함을)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115장(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르가니스트**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G. F. Händel) **오르가니스트**